

농촌지역 노인의 저작능력과 영양섭취상태와의 관련성

권진희*, 이성국, 이희경[†], 김규종^{††}.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영남대학교의료원
치과학교실[†], 성주군 보건소^{††}

The Relationship between Chewing Ability and Nutritional Intakes Status in the Elderly of Rural Community. Jin Hee Kwoun, Sung Kook Lee, Hee kyung Lee[†], Gju Jong Kim^{††},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Department of dentistry,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Taegu, Korea[†]. Sungju-Gun Public Health Center^{††}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영양과 건강과의 관계, 노인들의 영양상태문제, 노인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증진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인이 되면 치아의 상실의 질(Quality of life)의 증진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인이 되면 치아의 상실이 있게 되고 치아의 상실은 저작능력을 저하시키고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선택범위가 좁아져 식사의 양과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자연치의 감소는 우선 의치를 보충하면 되지만 저작능력은 건강인의 능력에 비해 낮아지므로 식품의 선택과 영양섭취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저작능력, 영양섭취상태를 알아보고 또한, 이들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촌지역의 재택노인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하는 노인 150명(남자 68명, 여자 8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상자 전원에게 일반적인 특성, 저작능력, 구강내상태검사, 식품섭취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녀 각각 73.8세, 73.9세이었고, 교육정도는 무학이 76.0%, 가족구성은 배우자와 둘이서 사는 경우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64.7%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작능력은 남녀 각각 41.2%, 37.8%가 저작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남녀 각각 55.9%, 31.7%가 고ADL이었다. 잔존치아수와 ADL점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DMF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성별, 연령, ADL에 따른 저작능력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연령에 있어서 65-69세에서 저작가능이 53.5%, 저작불능이 46.5%인 반면에 80세 이상에서는 저작가능이 21.2%, 저작불능이 78.8%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저작능력에 따른 잔존치아수는 저작가능군 13.4개, 저작불능군 7.2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DMF치는 저작가능군 18.8, 저작불능군에서는 24.4로 저작불능군에서 DMF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저작능력에 따른 1일 영양소섭취량을 보면 남자의 경우 저작가능군에서 에너지, 단백질, 인, 니아신, 티아민,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고, 여자의 경우는 에너지, 단백질, 철, 인, 니아신, 티아민,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저작가능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 식품군별섭취량에서는 곡류 및 가공품, 채소류의 섭취량이 저작가능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영양섭취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에너지의 영양권장량에 대한 백분율(%RDA)로 하여 다단계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한 결과 저작능력, 일상생활 동작능력,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